REALTY KOREA
Market Report
2015 4Q | NO.10

REALTY KOREA

Contents

02 2015.4Q Economic Market 거시적 동향 진단(1)~(2)

04 2016. Investor Guideline_빌딩시장 전망

05 중·소형 빌딩 2015.4Q Market Analysis

06 중·소형 빌딩시장 거래규모 및 현황

07 거래시장 매수자 유형 및 금액대별 투자규모

08 매수자 유형별 투자 선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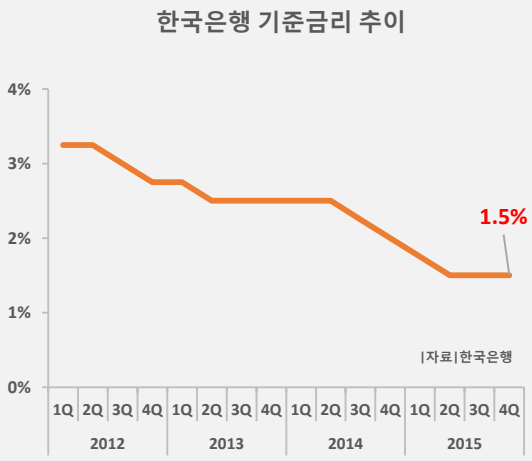
09 투자 선호도로 분석한 매입 자산의 유형

10 [강남권] 대표 지가상승 지역 분석_봉은사역 대로변, 세로수길

11 [강북권] 대표 지가상승 지역 분석_연남동, 한강진길

12 RK Research Reference Page

美, 7년 만에 제로금리 시대 종결→ '금리인상' BIG EVENT, 경제회복 자신감 비쳐
한국은행, 당분간 기존 금리(연 1.5%)유지 방침 표명
향후 '점진적 금리인상'에 무게 실려…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 제한적일 듯



미국이 7년 간 지속해온 제로금리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지난 12월 16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 전반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최근 **미국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며, 실업률 또한 5.1%로 완전 고용률에 근접한 것으로 드러나 고용 시장도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미 연준 측은 금리인상 여부의 '척도'로 여겨지는 인플레이션 중기 목표치 2% 달성을 확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금리인상 단행이 곧바로 한은의 금리 인상대열 동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국내 경기 흐름과 외환 건전성 등의 추이를 지켜보고자 당분간 **기준 금리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추후에도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금리의 **점진적인 인상** 의지를 내비친 만큼, 미 금리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으리라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경제 기초여건(fundamental)이 양호하며 금융 부문의 외환 건전성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금 유출 등의 부작용을 현재로선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상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다만, 미 금리 인상에 더해 여러 대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신흥국 발 자금 이탈의 도미노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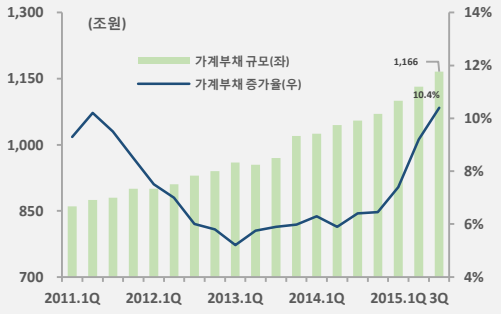
美 금리 인상, 결과적으로 국내 시중금리 상승을 불러와…아직 대응할 시간 有
우리 경제 회복세 더딜 경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배제 못해

미 금리인상 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는 금리인상 압박을 받을 것이다. 설령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시중금리는 리스크 가산금리 상승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으며 미국 측 인상과의 시간 격차는 6~9개월로,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만 본다면 일시적으로 주춤 현상은 있어도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 제거' 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어 대세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상이 시장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는 만큼, 대응하기에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보여진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빚에 허덕이는 좀비기업 어려움 겪을 것
시중금리 상승 예상… 특히 高 LTV 대출이나 한계가구/기업 대출금리 부담 현실화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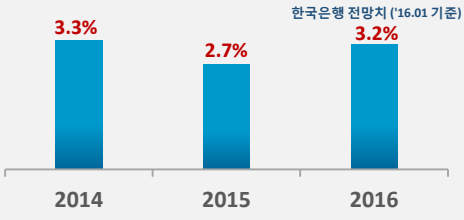
※규모 및 증가율: 가계신용통계 기준(전년동기 대비) |자료|한국은행

현재 기업부채는 약 1,319조원 , 가계부채는 약 1,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계부채의 경우, 주택매매가격 상승 등에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미 금리 인상은 국내 시중금리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시중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 담보대출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금리 인상 시기 도래 시, 국민들과 원리금 상환 능력이 특히 떨어지는 '좀비기업'들의 이자부담이 더욱 커져 추후 가계와 기업 대출에는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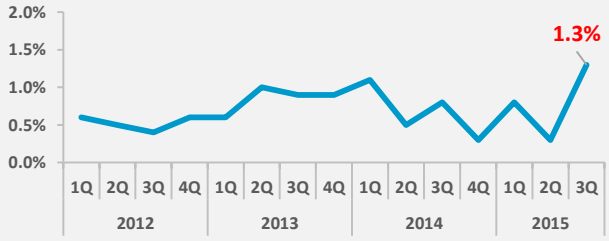
떨어지는 경제체력…2018년부터 본격적인 '소비절벽, 인구절벽'
저성장의 늪…한국경제 新 성장동력 산업의 종류, 과거보다 제한적인 탓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현황



|자료|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기 대비]



|자료|한국은행

작년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 내수 경기의 타격으로 분기별 0%대 성장률을 (3분기 1.3% 제외) 기록하며 경기 둔화 양상을 보여줬다. 미국을 뺀 세계 주요 경제권의 경기침체 국면인 **'저성장'**의 원인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다. 갈수록 진행되는 노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이른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현상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 감소보다도 더욱 우려할 점은 무엇보다 **'소비의 급속한 하강현상'**이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인구오너스' 현상이 더욱 본격화되고 2018년에는 **'인구절벽'**에 다다를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추경 편성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내수 소비확대 정책으로 소비가 다소 살아나기는 했지만 계속되는 경기둔화 가능성 때문에 투자와 소비 심리 동결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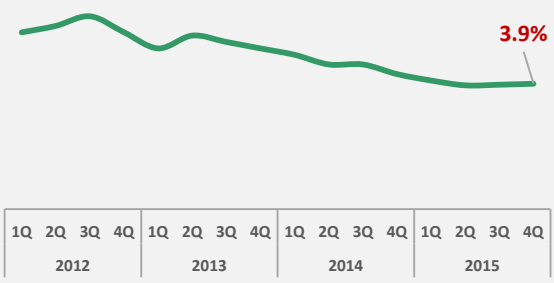
저성장의 원인인 성장잠재력 저하 측면에서 또 하나 짚어볼 점을 꼽자면, 앞으로는 어디에 투자를 해도 **과거처럼 큰 성장률을 보여줄 만한 산업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즉, 진작에 키워볼 만한 분야에 이뤄진 투자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이는 기업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을 통한 예금 수신 만으로는 은행 측에서도 예전만큼 큰 이득을 볼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6. 투자자 가이드] "꼬마빌딩, 수익률 줄어도 매매가 하락 가능성 낮아"

현실화된 '빅 이벤트',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금리를 동결하며 국내 경기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추후 금리 인상 여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갈릴 수 있으며 경기가 악화될 경우,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도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국내 장기금리는 미국 금리를 따라 움직여왔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시중금리 상승 압력은 추후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단 그래프를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중소형 빌딩의 투자수익률은 지난 '12년 평균 6%에서 '15년 12월 기준, 평균 3.9%대로 점진적인 하락세를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2015.중·소형빌딩 투자수익률 현황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투자수익률과 금리 간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금융 상품의 기대수익률 또한 과거처럼 높지만은 않다는 점,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이 웬만한 금융 상품의 수익률을 상회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중·소형 빌딩은 마치 금융 상품의 대체재와 비슷한 투자 상품처럼 꾸준히 주목 받을 만한 자산임에는 분명하다.

꼬마빌딩의 미래, 거래량 줄어도 몸값 유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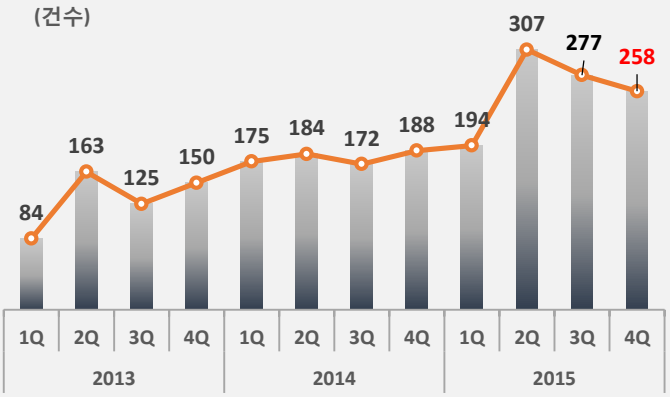
작년은 중·소형 빌딩시장의 규모가 총 거래금액 5조원 중반 대를 넘어선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줬다. 앞으로 가해질 금융규제, 금리인상 등의 대내 외 다양한 변수가 많아 빌딩시장은 추후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일반 주택시장의 공급과잉 현상과는 달리, 오히려 본 시장에서는 **'매물 품귀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는 특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빌딩 매매 가격의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입을 관망하던 잠재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투자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점점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인 매입 주도층으로 편입될 시 거래량은 적어도 보합세 혹은 소폭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무리하게 높은 LTV를 통한 건물 매입은 피하기를 권하며, 건물을 매입에 앞서 본인의 자금력/선호 지역/매입을 통한 목적을 뚜렷하게 정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2015년 4/4분기 총 거래량 258건… 전분기 대비 19건 감소, 하락폭 6.86%P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 37.23%P ↑… 2분기 연속 하락세, 분기별 평균 259건

각 해당연도 분기별 거래건수 종합 현황



2015년 4/4분기 거래량은 **258건**으로, 당해 가장 뜨거운 투자 활황을 보였던 2/4분기 이후로 2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좌측 그래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분기(277건) 대비 19건(6.86%P) 줄어들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37.23%P 늘어난 70건의 거래 증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2015년 **총 거래량은 1,036건**, **분기별 평균으로는 259건**으로 한 해를 마감했다. 이번 4/4분기에는 분기별 평균 거래량 수준을 보인 셈이다. 한 해 거래량을 상·하반기로 나눠보면, 각각 501건, 535건으로 하반기에 34건이 추가로 거래되면서 3.28%P 만큼 상반기를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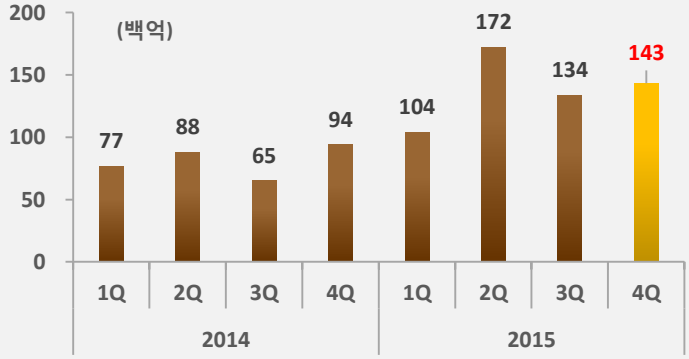
당사에서 집계한 최근 5년 간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할 때, 2015년은 거래량의 최고점에 도달한 시기로 조사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중·소형빌딩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4/4분기 거래규모 (중·소형 빌딩 매매금액 500억 미만 대상) 약 1조 4천3백억원.
전분기 대비 약 9백 61억원 증가, 규모 상승폭은 7.18%P

'15년 4/4분기 거래금액은 1조 4,346억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약 961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4,976억원 증가하여 그 거래규모는 약 1.52배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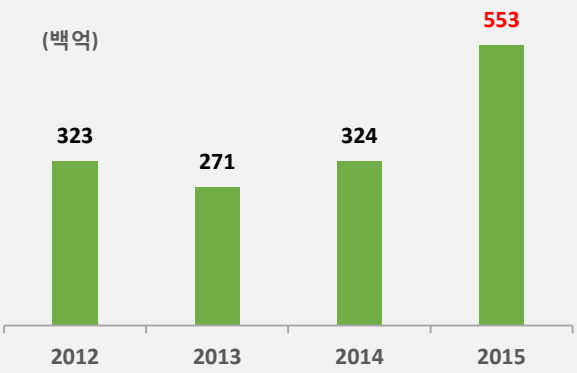
특히 '15년 4/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거래량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래금액 총액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4Q 종합 분기별 거래금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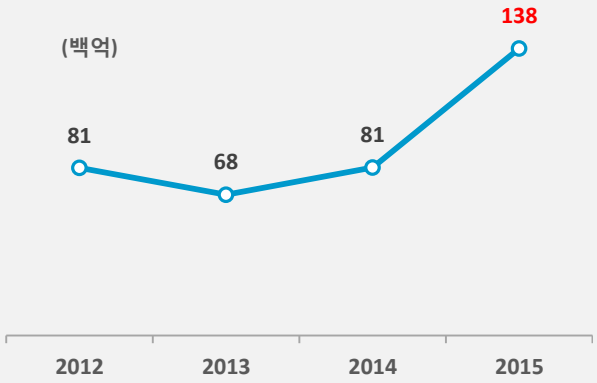


2015년 총 거래금액 5조 5천3백억원으로 '5조 중반대'를 뛰어넘어 분기별 평균 거래 1조 3천8백억원…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

각 연도별 거래 금액 규모 현황 (15.4Q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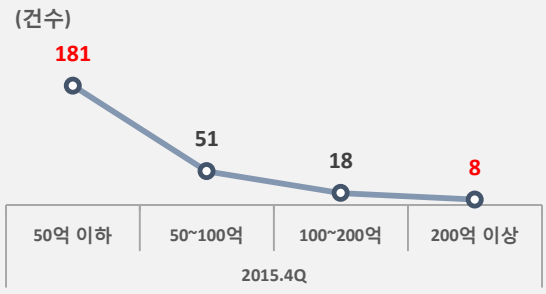
분기별 평균 거래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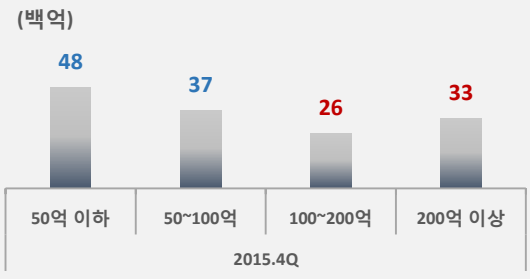
'15년 3/4분기 기준 총 거래금액은 4조원 정도였으나, 4/4분기 거래금액까지 더해져 연간 5조 5,300억 규모를 달성하게 되었다. 분기별 평균 거래금액은 매 분기 연속 1조원 (분기별 평균치는 1조 3,800억원)을 넘어섰다. '12~'14년 연도별 거래금액과 비교할 경우 올해는 최대 2조 8,20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이러한 분석을 볼 때 올해의 시장 확장세에 힘입어 내년에도 5조원 시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

4/4분기 총 거래규모…전분기 대비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타나 '100억 이상' 금액대에서 3/4분기 추월…특히 '200억 이상'에서 투자 강세 드러나

2015.4Q 금액대별 거래현황



2015.4Q 금액대별 거래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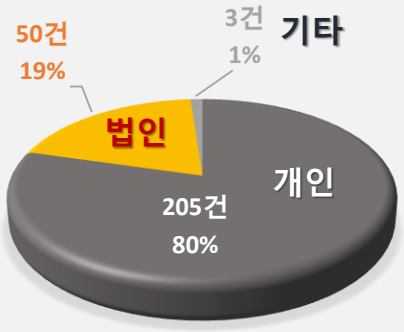


4/4분기 총 거래량(258건)의 약 70%는 '50억 이하'로, 본 구간 내 거래규모는 4,800억원 정도이다. 전분기 대비 4/4분기의 특징은 거래량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100~200억', '200억 이상' 구간의 거래량은 오히려 늘어나 해당분기 총 거래규모는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200억 이상' 거래량이 전분기 대비 4건 늘어나 본 금액대에서의 약 1,900억 가량 규모 증가가 전분기를 추월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분석된다.

거래시장 매수자 유형 및 금액대별 투자규모

4/4분기 개인 투자자, 여전히 빌딩 시장의 주도세력 …거래량 비중 80% 차지
법인은 비중 20%에 달하며 '약진현상'… 전분기 대비 상승세로 돌아서

2015.4Q 투자자 유형별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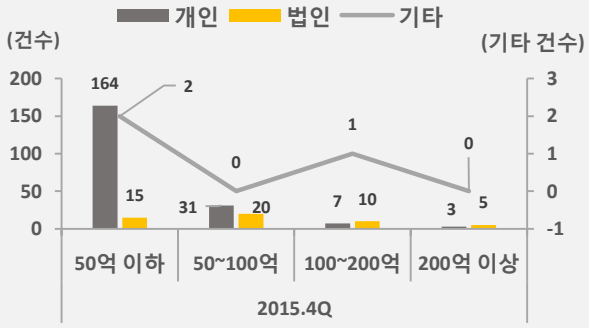


'15년도 4/4분기 총 매수 거래(258건) 중 개인 투자자는 205건을 매입하며 전체의 80%를 차지, 법인 거래량은 50건(15%), 기타 유형 매수는 3건(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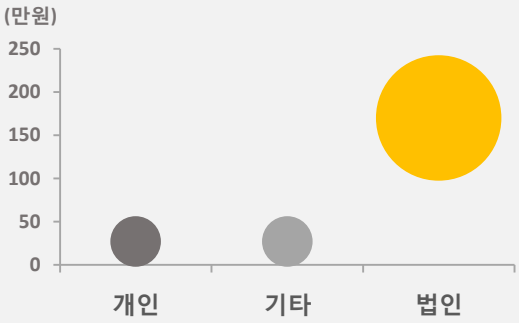
4/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전체 거래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거래량은 8건만큼 더 증가하여 그 비중이 20%에 근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27건 감소하였으며, 기타 매입 건수는 보합을 보였다.

개인, '50억 이하' 투자에 집중…본 금액대 거래량 164건 기록(비중 90.6%)
법인은 '100억 이상' 부터 개인/기타 유형을 추월

2015.4Q 매수자 유형별 금액대 투자 현황



주요 유형 [개인/법인/기타] 투자 집중 금액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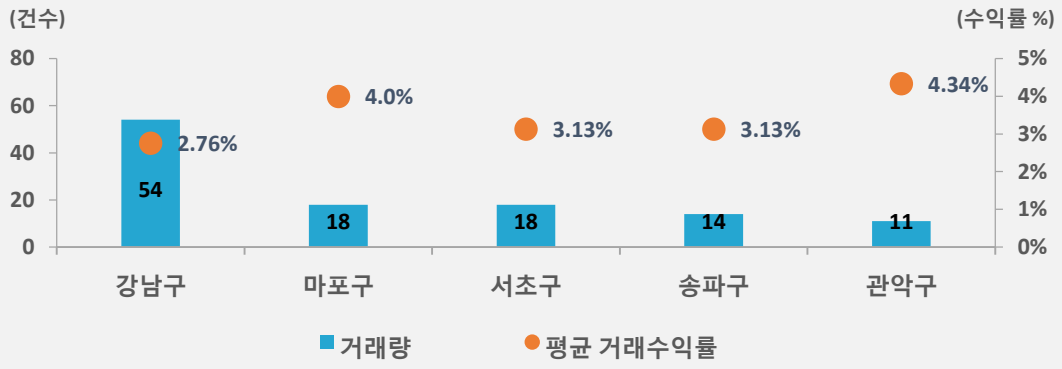


4/4분기 '50억 이하' 구간 내 개인 거래량은 164건으로, 본 금액대 내 거래량(총 181건)의 90.6%에 달하는 거래를 일으켰다. 법인의 경우 '50~100억' 거래량(20건)이 '50억 이하' 거래량(15건)을 넘어섰으며, '100억 이상' 부터는 개인 매수량을 추월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법인이 타 유형보다 높은 금액대의 매입에서 강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각 유형별 집중 금액대를 살펴보면 개인/기타는 특히 '50억 이하', 법인은 '100억 이상' 투자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자 유형별 투자 선호지역

개인 거래 선호도 상위 5개 구,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관악구로 나타나 거래수익률은 관악구에서 가장 높아...서초구와 송파구는 동일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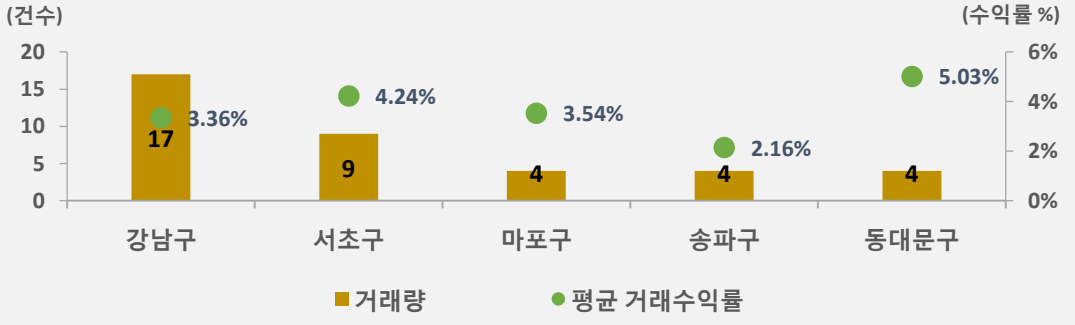
개인 거래량 상위 5개 구별 건수 및 평균 거래수익률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서울시 상위 5개 구는(거래량 기준)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관악구로 조사되었다. 각 구별 투자수익률은 강남구 2.76%, 마포구 4.0%, 서초구 3.13%, 송파구 3.13%, 관악구 4.34%로 나타났다. 상위 5개 구 중 관악구의 경우, 신림동과 봉천동 소재 모텔을 비롯한 원룸/근생시설이 혼합된 빌딩들의 거래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포구는 경의선 숲길 도로 양쪽을 중심으로 연남동의 노후화된 주택, 사무실 건물 매입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법인 매수 측 선호 지역 상위 5개 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 동대문구 포진 대부분 임대수익형 + 투자형 목적이 혼합된 매입 형태, 송파구 거래수익률이 가장 낮아

법인 거래량 상위 5구별 건수 및 평균 거래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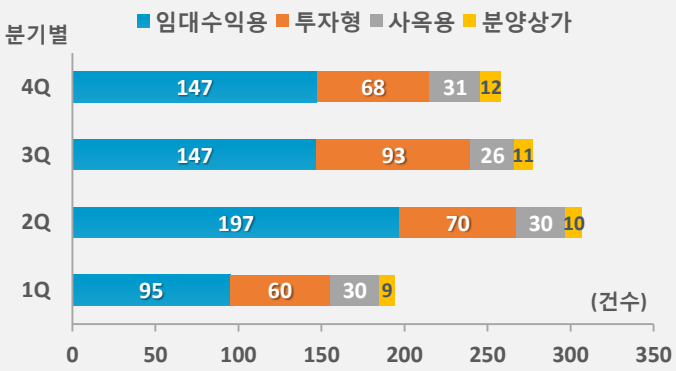


법인 측 투자 선호지역으로 서울시 상위 5개 구는(거래량 기준)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 동대문구로 나타났다. 각 구별 투자수익률은 강남구 3.36%, 서초구 4.24%, 마포구 3.54%, 송파구 2.16%, 동대문구 5.03% 선이다. 강남구에서는 역삼동, 신사동, 청담동, 논현동 소재 건물 거래가 다수였으며, 동대문구의 경우 용두동의 대형병원/신설동의 신축 개발부지 사례가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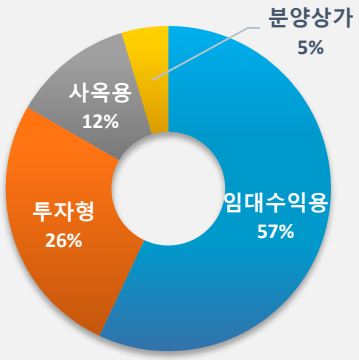
투자 선호도로 분석한 매입 자산의 유형

전분기 대비 임대수익용 거래량 보합, 비중은 4%P ↑…분양상가도 보합 양상
투자형/사옥용 비중, 전분기 대비 각 각 7.6%P↓, 2.63%P↑

2015.4Q 매입된 자산 유형별 거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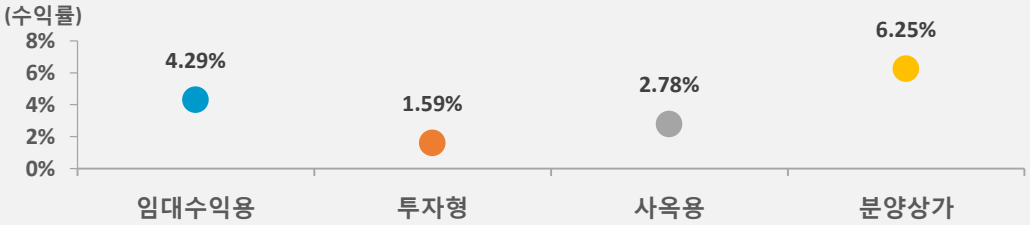
2015.4Q 자산 유형별 비중 현황



4/4분기는 전분기 대비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맥락에서 보면 임대수익용 거래량의 보합현상은 해당자산의 거래비중 증가(4%P 상승하여 57% 차지)를 의미한다. 투자형 거래건수는 전분기(93건) 대비 25건 감소, 당분기 거래비중은 7.6%P 떨어진 26%를 기록했다. 반면 사옥용과 분양상가는 전분기(각 26건, 11건) 대비 각 각 5건, 1건씩 증가하여 올분기 거래비중은 12%, 5%로 드러났다. 분양상가는 거래량 및 비중 측면에서 거의 보합세에 가까운 양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산 유형별 요구수익률 평균 수준, 임대수익용 4.29%, 투자형 1.59%
사옥용 2.78%, 분양상가 6.25% 선으로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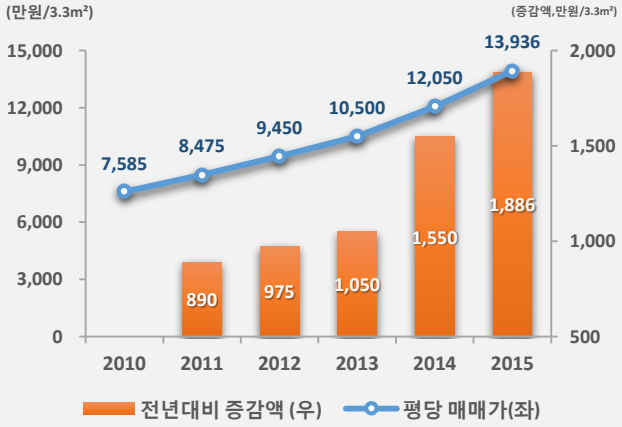
자산 유형별 평균 거래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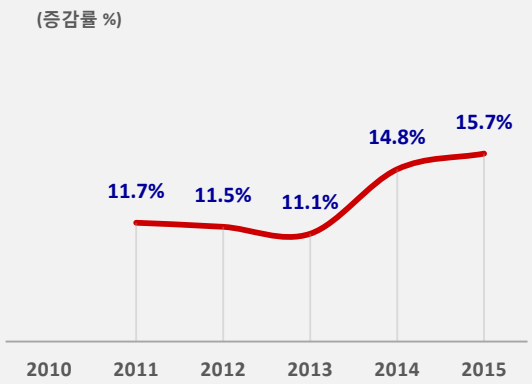
4/4분기에 거래된 자산 유형별 거래수익률 평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임대수익용 4.29%, 투자형 1.59%, 사옥용 2.78%, 분양상가 6.25%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분기 대비로는 임대수익용과 투자형은 각 각 0.16%P, 0.09%P 만큼 수익률이 낮아진 반면, 사옥용과 분양상가의 거래수익률은 각 각 1.41%P, 0.32%P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은사역 대로변] 최근 6년 사이 3.3m²당 평균 매매가격 6,351만원↑, 약 1.84배 뛰어 전년대비 평균 매매가 증감률 폭, 2015년에 가장 크게 나타나

3.3m²당 평균 매매가와 전년대비 증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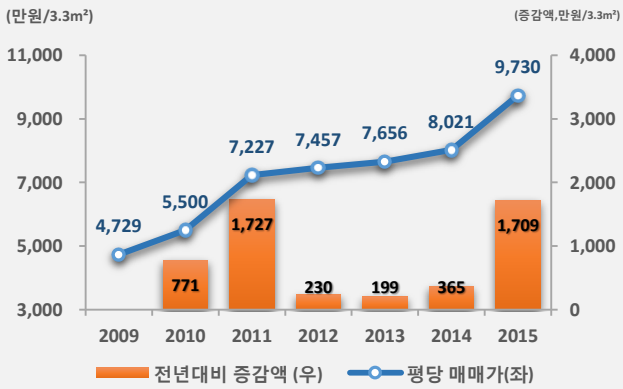
전년대비 평균 매매가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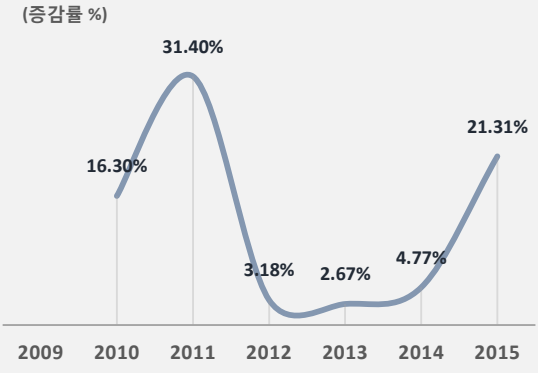
당사에서 2010년부터 2015년 말까지 봉은사역 대로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매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간 3.3m²당 평균 매매가격은 6,351만원 가량 상승하여 **약 1.84배** 뛰어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에는 전년대비 증감이 가장 큰 폭으로 일어났으며 1,886만원/3.3m², 15.7%의 증감률을 보였다.

[세로수길] 2010~2011년, 3.3m²당 평균 매매가격 1,727만원, 증감률 31.4%로 최대치 2011~2014년까지 강보합세로 상승 → 최근 2년간 가격 오름 속도, 급속히 빨라져

3.3m²당 평균 매매가와 전년대비 증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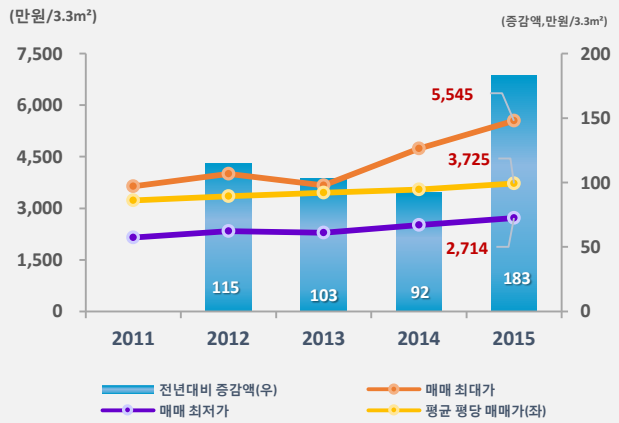
전년대비 평균 매매가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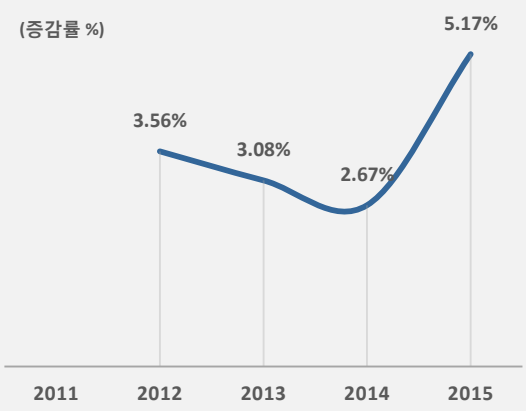
요즘 'Hot place'로 세간의 관심 세례를 꾸준히 받고 있는 세로수길은 최근 7년간 3.3m²당 평균 매매가격이 약 5,000만원 올라 무려 **2.06배에 달하는 지가상승**을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0~2011년 사이의 전년대비 증감액이 최대로, 가장 큰 폭(3.14%)으로 올랐다. 그 이후 3년 동안은 완만히 상승, 2014~2015년에 가격 오름세가 증폭되어 전년대비 평균 매매가 증감률은 21.3%로 나타났다.

[연남동] 3.3m²당 평균 매매가격, 2015년 5,545만원…전년대비 증감률 5.17% 최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상승, 동일 권역 內에서도 세부 입지별 매매가 격차 벌어져

3.3m²당 평균 매매가와 전년대비 증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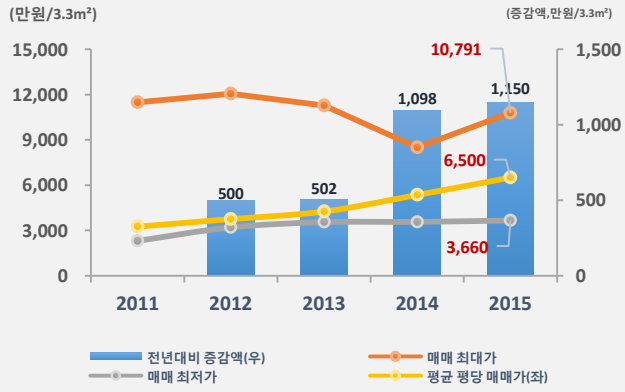
전년대비 평균 매매가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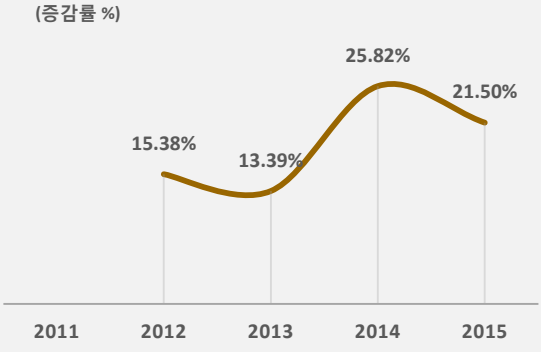
연남동은 현재 3.3m²당 평균 매매가격으로 4천 만원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의선 숲길이 조성된 좌우 도로 중심의 매각 사례 분석 결과, 동일한 섹터 안에서도 세부 입지별로 매매가 차이가 매우 현저하여 그래프에는 최대가와 최저가를 함께 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가장 큰 증감률(5.17%)을 보인 해는 작년이었으며,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2012년에는 3.56%로, 그 뒤를 이었다.

[한강진길] 연도별 3.3m²당 매매가, 최대가 VS 최저가 차이 심한 지역으로 드러나
평균적으로 2013~2014년에 가장 큰 상승폭 그리며 전반적으로 꾸준한 약진세

3.3m²당 평균 매매가와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평균 매매가 증감률



한강진역~이태원역 대로변 길과 바로 한 블록 이면의 매매사례에서도 동일한 섹터 내 세부 입지별로 3.3m²당 매매가격의 격차가 상당한 편으로 드러났다. 그래프에 표시된 최대가는 대로변 건물들의 사례로, 유명 연예인 및 대기업 측에서 매입 후 리모델링을 진행한 경우이다. 최근 2년 간의 전년대비 평균 매매가 증감률(21.5~25.8%)이 다른 시기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3.3m²당 평균 매매가격 추이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조사개요

지　　역: 서울시 전 지역(총 25개 구) 주요 상권 형성지

대　　상: 업무·근생시설/사옥용 빌딩, 상가주택, 투자용 부지(나대지/신축/재건축), 다가구주택, 분양상가

조 사 방 법: **Realty Korea Database 보유(총 61,458건) 자료 중 약 5,519건의** 매각자료 분석 및 현장 답사

조 사 내 용: 2015.4Q Economic Market 거시적 동향진단

2016. Investor Guideline_빌딩시장 전망

분기별/금액대별 거래량 및 거래금액 규모

매수 유형별/금액대별 거래량/투자 선호지역별 거래량 및 투자수익률

매입 자산 유형별 거래량/전체 대비 비중 및 수익률 분석

[강남/강북권] 대표 지가상승 지역 분석

조 사 기 간: 2015.10.01~2015.12.31

중·소형 빌딩 조사 항목 분류 기준

자산　유형별: 임대수익용/ 투자형/ 사옥용/ 분양상가

빌딩　규모별: 소형빌딩/ 중형빌딩/ 대형빌딩

매수자 유형별: 개인/ 법인/ 기타

투자 금액대별: 50억 이하/ 50~100억/ 100~200억/ 200억 이상 **(중소형 빌딩 기준, 500억 미만)**

2015.4Q [강남/강북권] 대표 지가상승 선정 지역 및 조사 기준

선 정 지 역 : **[강남권]**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신사동/ **[강북권]**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용산구 한남동/이태원동 일대

조 사 연 도: **[강남권]** 삼성동: 2010~2015년, 신사동: 2009~2015년

[강북권] 연남동, 한남동/이태원동: 2011~2015년

조 사 내 용: **[강남/강북권 공통항목]** 연도별 3.3m²당 평균 매매가와 전년대비 증감액/증감률

[강북권에 추가된 조사항목] 연도별 3.3m²당 매매 최대가와 최저가

- **빌딩 매입 · 매각 컨설팅**
  - 매입·매각 컨설팅 - 물리적 자산실사
  - Project Financing Brokerage

- **투자자문**
  - 부동산시장 분석 - 투자 사업성 분석
  - 부동산 개발 컨설팅 - 부동산 금융 컨설팅
  - 리테일 컨설팅

- **임대차 & 리테일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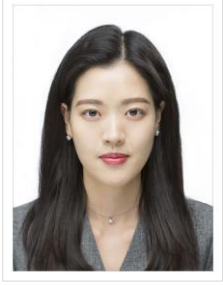
- **자산관리 서비스**
  - Asset Management - Property Management
  - Leasing Management - Facilities Management

- **벨루에이션 서비스**
  - 지역분석 - 가치분석 - 시장환경분석
  - 마케팅전략 - 투자전략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선택.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추구합니다.

리포트 문의



▶ 문소임 수석연구원 | 02.512.8277 (soim007@naver.com)

▶ **www.rkasset.co.kr** | **FAX. 02.512.7377**

* Realty Korea가 제공하는 보고서 정보 (그래프, 도표 등)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Realty Korea의 소유이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복사 및 배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ALTY KOREA

Realty Korea Co., Ltd
8F Baegang Bldg, 666-11 Shinsa-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 : 02.512.8277
Fax : 02.512.7377
www.rkasset.co.kr

* 본 리포트의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는 본문에 수록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의사결정은 투자자의 판단에 달려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